



[산업] 삼성전자-LG전자 프리미엄 TV 품팩터 경쟁 본격화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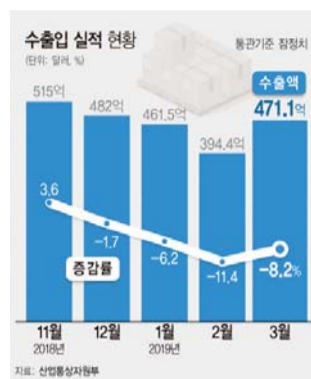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168.28 (+27.61)	코스닥	736.81 (+7.50)
금리 (미국 3년)	1.73 (+0.04)	환율 (원/달러)	1133.70 (-1.40) (1일)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 3월 수출 8.2% 감소 년 달 연속 내리막길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동력이 크게 약해졌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국내 반도체·정유·자동차·가전 등 수출 주력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반도체 전문가 26명(애널리스트 11명, 협단체·기타 15명)을 대상으로 '2019 반도체 경기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상·하반기 모두 반도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상반기에는 -16.9%, 하반기에는 -6.1%

# 이주열 “반도체 침체, 수요 회복 더딜 수도”

◆성장엔진 반도체 단가 하락 직격탄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71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 지속, 조업일 하루 감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수출 감소율이 3월에 한 자릿수로 둔화된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율은 작년 12월 -1.7%, 올해 1월 -6.2%, 2월 -11.4%, 3월 -8.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단가 하락과 함께 반도체를 구매하는 글로벌 IT기업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면서 3월 수출이 16.6% 하락했다.

반도체는 수출 감소 원인이 경쟁력 약화보다는 단가 하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의 가장 큰 고객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고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 “반도체 경기 회복 하반기 이후가 될 수도”

한은도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회복 속도가 더 늦춰질 것을 우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반도체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 사실”이라며 “최근 반도체 경기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고, 하반기 이후에는 메모리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아직은 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시기가 하반기에서 하반기 뒤로 늦춰지고 회복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느려질 것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웅·김희주 기자 grandtrust@

# 관절염 환자에 신장세포 주사

## “15년간 세포성분 몰랐다” 인보사 미스터리

美임상3상 진행중 STR검사 신장유래세포주 혼입 드러나 보건의료, 원인 철저히 조사 품목허가 유지 여부 판가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잘 알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골관절염 치료제)의 주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였다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투약을 받은 환자는 3500여명에 달한다. 회사측은 개발 초기단계에서의 세포 혼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실수이며, 치료제의 안정과 유효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글로벌 임상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부는 인보사에 다른 세포가 사용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품목허가 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1일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의 자발적 유통·판매 중단 관련 간담회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15년 전 코오롱티슈진에 무슨 일이

코오롱생명과학은 1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의 유통·판매 중지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인보사는 이용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19년간 투자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의 연골 세포(HC)인 1액과 TGF-β1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 2액을 3대 1로 섞어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인보사 판매가 중지된 것은 2액에 포함된 세포 1개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인보사를 발명한 코오롱티슈진은 그동안 TC를 분석했던 2004년 결과를 근거로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유전자 검사인 STR검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TC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293유래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규제와 기술에 대한 문제가 컸다고 해명했다.

STR 검사는 친자확인 검사에 사용되는 유전자 배열 검사로, 미국은 2010년부터 유전자의 혼입을 막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를 대상으로 STR 검사를 권고해왔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처음 인보사가 개발된 2003~200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미했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야 미국에서 STR 검사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왔다”며 “미국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STR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던 중에 세포 성분이 다른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STR 검사 결과를 식약처와 미국 FDA에 보고했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도 중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5월 중 FDA와의 대면 미팅에서 향후 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인보사 품목허가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시민단체와 만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

# 삼성, 5G시대 포문 연다... 세계 첫 5G폰 출시

5일 ‘갤럭시 S10 5G’ 출격 LG전자는 19일 출시 예고

삼성전자가 오는 5일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를 국내에 출시한다. 5G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이용자도 대거 끌어모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시장 상황은 유리하다. 우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전용 요금제 확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갤럭시 S10 5G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통3사가 지난달 갤럭시 S10 L



갤럭시 S10 5G 마젠타틱 블랙. /삼성

TE 모델을 출시하면서 추후 5G 모델로 교체할 경우 기존 LTE 모델 출고가를 전액 보상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구매자의 최대 30%가 이 프로모션에 가입했다. 10명 중 3명이 5G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밝힌 셈이다.

당분간 시장에 경쟁상대도 없다. 국내에선 LG전자가 19일 5G 스마트폰을 출시를 예고했다. 모토로라가 11일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을 통해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만, 5G를 구현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에 별도의 모듈을 끼워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5G 스마트폰 대열에 끼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2주가량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5G 스마트폰은 갤럭시 S10 5G뿐이다.

삼성전자는 10년 전부터 5G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그후 5G 집계를 주도했으며 5G 칩셋부터 스마트폰, 통신장비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LG전자는 오는 19일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를 출시한다. V50 씽큐는 6.4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5개의 카메라(후면 3개, 전면 2개)와 4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다. 6GB 램을 갖췄으며, 128GB의 내장 메모리로 출시된다. 가격은 119만 9000원이다.

글로벌 업체도 상반기 중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어 경쟁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